

제3의 공간과 아메리칸 드림 - 포스트콜로니얼리즘 시각에서 『조용한 오딧세이』의 정체성 재구축*

장 희 동**

요약

이민작가와 이산집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날, 민족과 문화 정체성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대표적인 학자 호미 바바는 '제3의 공간'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여 이산집단이 겪게 되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강조했다. 또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방인들과 이산 집단을 위한 안식처를 마련했다. 한국계 미국 문학은 세계 이산문학의 중요한 영역으로서, 대표적인 한국계 미국인 작가 메어리 팩 리는 자서전 『조용한 오딧세이』에서 미국에 정착한 이민 3세대 간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이산의 주체로서 소설 속 등장인물과 두 문화의 애매모호한 관계는 이들이 문화 협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낡은 정체성을 해체하고 새로운 이산 정체성을 재구축하며, 각기 다른 이산 경험 속에서 자아성장을 이룬다. 자서전 『조용한 오딧세이』는 다양한 문화 환경에서 '제3의 공간'을 구축하며 새로운 시대적 배경에서 두 문화 사이의 경계를 헤매다가, 결국 소외된 '타자'의 이미지를 타파하고 이산된 한국인들의 생활을 깊이 반영하였다.

주제어: 제3의 공간, 정체성, 아메리칸 드림, 메어리 팩 리, 『조용한 오딧세이』

* 이 논문은 중국 국가 유학기금 관리위원회(China Scholarship Council)와 한국 정부초정장학금(Global Korea Scholarship)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음(CSC NO: 202208230004).

**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목차

1. 서론
2. 정체성의 상실: 소수 민족의 곤경
3. 정체성 탐색: 미국 사회의 갈등에 빠져들다
4. 정체성 재구성: '제3의 공간' 속 지을 수 없는 아메리칸 드림
5. 결론

1. 서론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은 미국의 근본이자, 미국인들의 공통 신앙으로서 미국 사회 발전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미국 문학 창작을 위한 중요한 정신적 재산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아메리칸 드림은 미국 경제 대공황 시기에 최초로 등장한 개념으로, ‘더 좋고, 더 깊고, 더 풍부한 사람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아름다운 기대와 전망’을 가리킨다.¹⁾ 원래 아메리칸 드림은 원래 미국인들의 꿈이었지만 근대에 이르러 한국인들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에 정착한 이후로, 북미에 도착한 한국인

1) ‘아메리칸 드림’은 1931년 미국 역사학자 트러슬로 애덤스가 『미국의 서사』에서 최초로 제시한 개념으로, 대공황 시기 민중들의 사기를 고무시키고 미국 건국 초기의 이상적인 정신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가문과 배경을 불문하고 누구나 자신의 능력과 성취에 의해 풍요로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를 통해 지난 80여년 간 미국 건국 이래의 사회상을 요약하였다. 그리고 민중들에게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고 역사적으로 형성된 미국의 민족정신을 재발견하여 민중들에게 이상적인 빛에 비추어 어둠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 이상적인 빛이란 바로 ‘아메리칸 드림’을 가리키며, 개인의 노력으로 더 나은 삶과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메리칸 드림’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이다. 그중에서 개인의 노력은 성공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서 미국인의 문화 DNA로 자리매김했으며 아메리카 민족을 형성하는 강력한 정신적 원동력이 되었다. 더 광범위한 의미에서 개인적 차원에서 집단적 차원으로 확대되는 ‘아메리칸 드림’의 의미는 자유, 민주, 평등 국가의 이상과 사회 제도를 구축했으며 이는 ‘개인의 노력을 통해 성공’을 이루는 기본 조건이다.

James Truslow Adams, *The Epic of America*, Simon Publications, 2001, 45면 참조.

들의 ‘아메리칸 드림’으로 전환되었다. 한국인 집단의 ‘아메리칸 드림’은 자신의 삶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한다. 건국 초기, 미국은 넓은 토지와 풍부한 광물 및 자원에 비해 인구가 많지 않아 미국 건설을 위해 많은 노동력이 참여해야 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미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세계 각지의 뛰어난 노동력을 받아 들였고 이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거주하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세계 각지에서 꿈을 찾는 사람들이 미국을 향해 ‘꿈을 찾는’ 여정에 나섰고, 한국인들도 아메리칸 드림의 대열에 합류했다. “코리언 디아스포라는 1863년 연해주지역의 고려인 농업이민으로부터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역사는 새로운 경작지를 찾아가는 농업이민, 외지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이민, 잃어버린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밖으로 간 망명이민, 노동계약에 의하여 밖으로 간 계약이민, 사업진작을 위하여 밖으로 간 사업이민 또는 투자이민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²⁾ 특히, 1900년대 초반부터 1950년대까지 ‘배화법(排華法, Chinese Exclusion Act)’을 시행하며 중국 노동자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했다. 이로 인해 당시 사탕수수 주인들은 중국 외 아시아 다른 지역의 값싼 노동력을 찾으면서 1903년부터 1905년 사이에 한국계 이민자가 최초로 급증했다. 한편,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은 한반도를 점령해 식민통치를 진행하면서 토지 침범과 자원 약탈을 비롯해 사상적으로 노예화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어를 대신해 강제로 일본어를 교육하면서 ‘일한동조설’을 제기하여 현지인들을 식민지화했다. 식민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한국인들은 고향을 떠나 미국에 건너가 자신의 ‘아메리칸 드림’을 찾았다.³⁾ 따

2) 장우권, 김현희, 『(라키비움Larchiveum에 숨어있는) 코리언 디아스포라 지식정보자원』, 청람, 2022, 5면.

3) 한국계 미국인 작가들의 작품에는 이러한 주제가 자주 등장한다. 주인공들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부와 기회를 찾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미국으로 이주한다. 즉, 주인공들이 새로운 인생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과 기대감이 있으며, 이것이 바로 ‘아메리칸 드림’이라 할 수 있다.

라서 당시 한국계 미국문학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대표적인 작가로는 류일한(Ilhan New, 1895—1971), 강용홀(Younghill Kang, 1898—1972), 메어리 팩 리(Mary Paik Lee, 1900—1995) 등이 있다. 그중 메어리 팩 리의 자서전 『조용한 오딧세이: 미국의 한국인 여성 개척자』⁴⁾(*Quiet Odyssey: A Pioneer Korean Woman in America*, 1990)는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 작가의 회고록으로, 1900년대 초반 유일한 한국계 미국인 여성 작가의 회고록이기도 하다. 최초의 한국계 미국인 개척자로서 메어리 팩 리는 한국계 이민자들의 미국 생활의 고단함을 직접 경험하였고 미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국에 온 한국인들이 먹고살지 못하는 처지를 목격했다. 메어리 팩 리의 여성 자서전은 20세기 미국 사회 문화를 조명함에 있어서 선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메어리 팩 리의 영문 창작은 한국계 미국 이산문학에 새로운 창을 열었으며 포스트콜로니얼리즘 시대의 새로운 맥락에서 정체성의 확립, 문화 정체성이 새로운 관심을 받고 해석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정체성 구축은 미국 소수 민족 문학에서 흔히 등장하는 주제로 꼽힌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세 가지 질문은 소수 민족들의 자아 정체성에 대한 의혹과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수칭 찬(Sucheng Chan)은 작가 메어리 팩 리의 자서전을 편집하는 서문에서 “그녀의 이야기는 한국 역사를 인용하면서 시작하고 동시에 마무리 짓는다. 그러면서도 가난한 아시아 여성이 미국의 꿈에 가려자라는 것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었다.”⁵⁾라고 언급했다. “메어리 팩 리의 「조용한 오딧세이」가 다른 이민 자서전과 가장 뚜렷이 다른 것이라면 참다운 의미에서 ‘한국계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기록한다는 점이다.”⁶⁾ 메

유선모, 『한국계 미국 작가론』, 신아사, 2004, 152면 참조.

4) 이후 책 제목은 『조용한 오딧세이』로 표기할 것이다.

5) Lee, Mary Paik, *Quiet Odyssey: A Pioneer Korean Woman in America*, Ed. Sucheng Chan, Seattle & London: U of Washington P, 1990, LX.

6) 김옥동, 『(한국계 미국 이민) 자서전 작가 = Korean American immigrant autobiographers』, 소명

어리 팩 리의 대표작 『조용한 오딧세이』는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하는 메어리 팩 리의 삼대 가족 이야기를 서술했다. 작품 속의 모든 인물들은 문화적 정체성이 소외되거나 심지어 분열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주류 문화에서 밀려났지만, 여전히 뚜렷한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정체성의 곤경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과 이상적인 환경을 추구하고 구축하고자 한다. “이주자 세대는 자녀들(두 번째 세대)을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해방시키려 하지만, 세 번째 세대는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자 과거를 포용하려 한다는 것이다.”⁷⁾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메어리 팩 리는 주변인물에 대한 묘사와 함께 아픔 뒤에 숨은 희망을 파헤쳐 보려는 시도를 헤아려 볼 수 있다. 한국인들은 억압 속에서 목소리를 내며 미국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찾는 동시에 동서양 문화의 융합, 즉 다문화적 갈등과 조화를 추구하면서 호미 바바의 ‘제3의 공간’ 이론을 구현했다.

호미 바바(Bhabha, Homi)는 『문화의 위치』(*The Location of Culture*)에서 이원론적 대립을 비롯하여 지식과 대립하는 ‘제3의 공간’을 제기하였다. “제3의 공간은 자아 혹은 타자 외의 어떤 사물과도 같이 모호하게 뒤섞인 공간으로서 인종, 계급, 문화전통의 차이를 넘나드는 문화 정체성의 ‘역치(liminal/liminality)’를 보여준다.”⁸⁾ 호미 바바에 따르면, “오늘날 문화는 더이상 전통이라는 순수한 중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명들이 접하는 경계와 국경 사이에서 참신하고 혼동된 정체성이 형성되고 있다. 다문화 사회에 처해 있는 이민자를 포함한 이산된 모든 민족들은 ‘문화 사이’의 세계, 바로 ‘제3의 공간’에 처해 있게 된다.”⁹⁾ 따라서 제3의

출판, 2012, 372면.

7) 케빈케니, 최영석 역, 『디아스포라이즈(is)』, 엘피, 2016, 184면.

8) Bhabha, Homi, *The Location of Culture*, New York: Routledge, 2004, 28면.

9) Bhabha, Homi, “Dangerous Liaisons: Gender, Nation, and Postcolonial Perspectives”, *World and the Home*, Eds, Mc Clintock A, Mufti A, Shohat 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7, 455면.

공간 속 문화 정체성은 자아 또는 타자의 문화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두 문화를 벗어나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그 사이에 위치해 두 가지 문화의 특징이 뒤섞여 있다.

호미 바바는 정체성 구축 측면에서 ‘이중 정체성’ 전략을 강조했다. “이중 정체성은 실제로 두 개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이 중복성을 띠고 있고 때로는 연속적으로 반복하고 끊임없이 수정 또는 재구성되며 앞과 같은 반복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⁰⁾ 소수 민족은 주류 문화 속에서 자민족의 문화가 갈등과 협상을 거듭하며 고유한 문화적 시각과 문화 정체성을 구축하고 새로운 세계에서 문화적 정체성을 창조한다. 사람들은 다문화 간 교류 속에서 각 문화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구역이 형성되었다. 이와 같은 모호한 경계에서는 두 문화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분단의 과정에서 생성된 긴장이 서로 얽혀서 ‘제3의 공간’을 형성하게 된다. 이 공간은 두 문화의 융합과 갈등이 공존하는 독특한 영역이다. 『조용한 오딧세이』는 한국계 미국인 작가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성장시키는 과정을 담아냈으며, 그 과정에서 문화의 이원론적 대립을 해소하고 다문화가 서로 융합하고 공존하는 ‘제3의 공간’의 재구성, 바로 한국계 이민자들이 가슴에 품은 ‘아메리칸 드림’을 구현했다.

오늘날 영미 학계에서 『조용한 오딧세이』에 관한 연구는 주로 평론¹¹⁾을 중심으로 전개했다. 선행 연구에서는 『조용한 오딧세이』에 대해 높은

10) Bhabha, Homi, 같은 책, 196-198면.

11) Elaine H. Kim, “Quiet Odyssey: A Pioneer Korean Woman in America, by Mary Paik Lee, Sucheng Chan”, *Pacific Affairs*, Vol. 64, No. 2 (Summer, 1991), 290-292면; Glenna Matthews, “Quiet Odyssey: A Pioneer Korean Woman in America by Mary Paik Lee”, *Agricultural History*, Vol. 65, No. 1 (Winter, 1991), 113-115면; Patricia Lin, “Quiet Odyssey: A Pioneer Korean Woman in America Mary Paik Lee Sucheng Chan”, *MELUS*, 1991 Apr 01, 17(1), 114-117면; Wayne Patterson, “Quiet Odyssey: A Pioneer Korean Woman in America(review)”, *Korean Studies*, March 1992, Vol. 16 Issue: 1, 125-126면.

가치를 지닌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학자들은 『조용한 오딧세이』이 아시아계 미국 여성이 쓴 최초의 자서전 속 역사적 서사¹²⁾와 자서전적 서사를 논하며 이산문학 시각¹³⁾이나 이미지학 시각에서 『조용한 오딧세이』 속 기독교 이미지¹⁴⁾를 분석했다. 본 연구는 호미 바바의 ‘제3의 공간’ 이론을 활용하여 자서전 『조용한 오딧세이』 속 메어리 팩 리 일가의 미국 망명 과정을 비롯한 문화적 협상을 통해 이들이 경험하는 정체성의 갈등과 곤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동양과 서양 문화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이산집단을 위한 제언을 제시한다. 또한, 이산집단들이 ‘타자’ 문화의 혼동과 갈등을 경험한 후 일련의 미국 갈등을 조정하고 모순과 갈등 속에서 자아 정체성을 구축하는 과정과 정체성 차원에서 새로운 다문화 정체성을 수용하는 방법을 분석하여 포스트콜로니얼리즘 관점을 바탕으로 소수 민족의 ‘제3의 공간’ 구축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정체성의 상실: 소수 민족의 곤경

동양과 서양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는 표상적, 심층적, 잠재적인 넘을 수 없는 한계를 설정하였다. 보이지 않고 넘을 수 없는 한계는 한국계 혈통이라는 정체성에서 두드러진다. 『조용한 오딧세이』 속 인물들은 정체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아픔을 겪고 있다. 메어리 팩 리 일가는 시종일관 이와 같이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정체성의 곤경을 느낀다. 『조용한 오딧세이』는 시작과 함께 붕괴된 가정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집안의 파탄과 고향의 부재를 은유했다. 또한 메어리 팩 리는 『조용한 오딧세이』

12) 이소희, 『『조용한 오딧세이』: 역사의 주체로서 삶 쓰기』, 『영미문학페미니즘』 24(2),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2016, 115-161면.

13) 김옥동, 같은 책, 2012.

14) 김의락, 『경계를 넘는 새로운 글쓰기: 아시아계 미국문학 연구』, 신아사, 2003, 137-152면.

의 서두에서 한국 농민들이 겪은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관점에서 생생하게 묘사했다. 주인공의 아버지와 같이 땅과 집을 잃은 수천 명의 한국 농부들을 보여주며 토지를 잃은 이들이 본국의 정체성과 민족문화의 뿌리를 잃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생존을 위해 대대로 살던 집을 버리고 인천으로 떠난 농민들의 모습으로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압박으로 인해 문화적 정체성을 상실하고 역사속의 타자로 전환되었음을 나타냈다.

한국계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이주는 단순히 고향을 떠나 지리적 공간을 전환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문화 체험과 삶의 경험으로 인해 정체성의 분열과 재구성이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여기서 지리적 공간은 특정된 사회적 배경과 사회 모순의 매개체로서 이산집단들의 생활상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배경 속 이산된 정체성에 대한 자아 인식을 반영한다. 마침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주는 일꾼을 모집하기 위해 배 두 척을 인천항에 보냈고 메어리 팩 리 일가는 미국의 자유로움과 평등에 대한 열망을 품고 고향을 떠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을 맞이한 것은 백인들의 노골적인 인종차별이었다.

우리는 1906년 12월 3일 샌프란시스코에 상륙했다. 트랩에서 내리자 어떤 생물이 배에서 내려오는지 보기 위해 젊은 백인들이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자신이 매우 이상한 집단이라고 생각했다. 백인들은 우리 일가를 비웃으면서 침을 뱉었다. 심지어 어떤 남자는 주우리 어머니의 치마를 걷어 올리며 알아들을 수 없는 이름으로 그들을 욕했다.

We landed in San Francisco on December 3, 1906. As we walked down the gangplank, a group of young white men were standing around, waiting to see what kind of creatures were disembarking. We must have been a very queer-looking group. They laughed at us and spit in our faces; one man kicked up Mother's skirt and called us names we

couldn't understand.¹⁵⁾

위와 같이 당시 미국인들은 동양인에 대해 적대적이고 가혹적인 감정을 보여주었다. 미국에 처음 온 메어리 팩 리 일가는 집세를 지불할 돈이 없어, 1인당 5달러를 받고 막노동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이들의 임금을 가혹하게 깎아버리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인종차별이 심한 시선 속에서 고국을 떠난 한국인들은 스스로 몸부림치는 취약계층으로 전환되었다.

그후 벼를 재배하는 기술로 메어리 팩 리 일가의 생활 수준은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 1910년 중반부터 1920년대 초반까지 메어리 팩 리의 아버지와 남편은 제1차 세계 대전 기간 벼농사 열풍에 동참하여 상당한 수확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그러나 “아시아 사람들은 토지 임대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미국 대통령과 사적인 구두 협의를 진행해야만 했고 10에이커 되는 작은 토지에 대해 정부 기관은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토지는 백인들의 소속이다.”¹⁶⁾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인들이 미국 벼농사에 뛰어난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채,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살아갈 길을 찾아 헤매야 했다. ‘제3의 공간’에 살고 있는 메어리 팩 리 일가와 같은 소수 민족에게는 정체성의 변화성, 불안정성, 일시성 등의 특성 때문에 단일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이와 같이 자아, 타자, 집단에 대한 개인의 정체성은 하나의 정체성에서 다른 정체성으로 넘어가는 단순한 직선적 변화가 아니라 끊임없이 왕복하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굴곡을 그리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킨다.

서양 중심의 환경 속에서 “발언권은 진실된 무거운 존재나 단어의 통상

15) Lee, Mary Paik, 같은 책, 12면.

16) Lee, Mary Paik, 같은 책, 89면.

적인 용법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객체의 질서를 정의한다.”¹⁷⁾ ‘누군가 말하고, 무엇을 말하고, 누구에게 말하느냐’는 과정 속에는 발언권의 경쟁과 등급이 내포되어 있으며 발언권을 가진 쪽은 상대방을 설득하고 훈계하는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 서양 주류 사상이 강조하는 모범적인 소수 민족들의 이미지는 과묵한 이미지로, 이는 한국계 미국인 이민자들의 요구를 제한했다. 그 과정에서 메어리 팩 리는 한국인에 대한 백인들의 박해와 학대를 지켜보았으며 스스로도 백인들의 폭력과 정신적 모욕을 경험했다. 그의 남동생 에른스트(Ernest)가 11살에 고등학교에 입학한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윌로우 신문의 1면에는 에른스트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기사에는 에른스트가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에 입학한 최연소 학생이라고 적혀 있다. 이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그러나 한 사람이 기쁨에 겨워 삶을 받아들을 때, 현실은 늘 뜻대로 되지 않는다.

에른스트의 교복, 흰 셔츠, 넥타이와 구두를 구입하려면 반드시 우리 집안의 저축을 희생해야 한다. 고등학교에서는 모든 남학생은 반드시 짙은 색 정장을 입어야 하고, 여학생은 반드시 간단한 치마 즉 화려한 드레스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에른스트 첫 주 동안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과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 며칠 후, 우리는 학교 앞에서 에른스트를 기다렸으나,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학교 뒤쪽으로 찾아보았는데 에른스트가 울고 있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의 몸에 물과 밀가루를 뿌렸기 때문이다. 그의 모습은 매우 불쌍하게 보였으며 집으로 가는 길에 나는 매우 화가 났었고, 동시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무력감을 느꼈다.

Our family had to save and sacrifice to get him a suit, white shirts, ties, and shoes for school. There was a rule in high school that all boys

17) Foucault, M, *The Archaeology of Knowledge and The Discourse on Language*, New York: Vintage Books, 2010, 49면.

had to wear dark suits. The girls had to wear simple dresses, no fancy party dresses. Ernest was the object of great curiosity and hatred the first week of school. I was waiting for him in front of school a few days later, but he didn't show up. I went around to the back of the building and found him crying. What a sight he was. He had been sprayed with water and sprinkled with flour. As we walked home, I was furious. But I felt helpless, wondering what I could do.¹⁸⁾

이 일을 이후로 메어리 팩 리 일가는 그들이 지향하는 평등은 이민자 및 한국계 집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백인 아이들은 한국인 학생과 인사할 때 이름이 아니라 '이봐!', '너!'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2세대인 메어리 팩 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합격점수만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백인이 아닌 학생들에게 낮은 점수를 주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한편, 가문 3세대인 큰아들 헨리(Henry)가 5학년 때 학급별 철자 시험에 참석하여 1등을 했지만 선생님은 오히려 2등을 한 소녀에게 상을 주었다. 미국에 온 한국인들은 미국의 대표적인 소수 민족으로서 미국에서도 최하층의 소외계층에 속한다. 이들은 신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심한 차별을 받았다. 주류 문화와 주도 사회의 억압과 차별은 그들에게 박탈당하고 소외를 받는 고통을 주었으며 사회적 지위의 불공평과 사회 이동의 어려움을 시시각각 느끼게 한다.

호미 바버에 따르면,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역사 속에서 이민자들은 과거 식민지의 노예이자, 피압박자이며, 미국 패권 문화 사회 속의 소수 민족이기도 하다. 이들은 '문화 사이'에서 살고 있고 정체성은 여러가지 모순된 갈등을 겪으며 격동적이고 고통스러운 혼잡한 문화의 과정에 깊이 빠져들고 있다. 서양의 강력한 문화와 인종주의에 맞서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자신을 규정해야 할까? 자신의 민족성과 타자성을 어떻게 대

18) Lee, Mary Paik, 같은 책, 57면.

할 것인가?라는 정체성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 1세대 한국인 이민자들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지리적 이주를 직접 경험하면서 공간적 전환으로 인한 문화적 착란에 대해 깊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이산자아들은 백인중심의 제1세계에서 제3세계의 외로운 섬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¹⁹⁾ 한편, 메어리 팩 리는 어린 시절 한국 농민들에 대한 콜로니얼리즘의 패권적 괴롭힘을 목격하면서 그녀도 농업 문화를 나타내는 정체성의 상징인 토지를 잃고 착취를 당하는 역사의 타자로 전락했다. 미국 사회에서 소외 계층에 속하는 메어리 팩 리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일가는 백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에서 백인 식민자들의 유형적 폭력과 무형적 핍박을 받으며 생존을 이어갔다. 오랫동안 이민족 문화에 노예화 되는 주인공은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잊기 시작하고 역사적 기억도 단절되어 결국 조국을 떠나게 되었다. 이로써 콜로니얼리즘에 의해 문화적 정체성을 박탈당한 주인공은 먼 바다를 건너 미국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찾지만, 서양의 주류 문화는 다시 그녀와 선을 긋고 그를 주류 사회로부터 소외시켰다. 인종 차별에 시달리는 주인공은 수시로 박탈을 당하고 소외된 고통과 사회적 불평등을 느끼게 되며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의심한다. 그리고 ‘나의 집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와 같은 이중적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곤경에 처하게 된다.

3. 정체성 탐색: 미국 사회의 갈등에 빠져들다

포스트콜로니얼리즘 이론에서 ‘모순된 상태’는 ‘양가성(Ambivalence)’이라는 용어를 가리키며 호미 바버는 식민자와 피식민자 간의 관계에서 끌리고 배척적인 복잡한 상태를 설명하는 데 사용했다. 호미 바버에 따르

19) 임진희, 『한국계 미국 여성문학: 인종·성·국가의 미학』, 태학사, 2005, 57면.

면, “식민자와 피식민자 간의 모순된 상태는 식민 관계 속의 각종 경계, 즉 자신과 타자의 분열 및 식민 권리의 문제를 비롯하여 식민자와 피식민자가 분화되는 과정으로서, 헤겔의 주인-하인 변증법 및 현상학에서 제시하는 이타성과 큰 차이가 있다.”²⁰⁾ 이러한 모순된 상태는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관계 속에 존재한다. 호미 바바의 관점에서 서로 끌리고 배척하는 식민자와 피식민자 사이의 관계는 모순적이다. 식민자의 권리는 절대적인 권위나 강제가 아니며 피식민자는 완전히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이지 않다. 따라서 식민자와 피식민자는 완전히 대립되거나 완전히 서로 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정체성은 단순히 ‘식민자가 아니면 피식민자이다’로 정의되지 않는다. 따라서 식민 주체의 정체성은 단지 저항, 혹은 공모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모와 저항이 식민주체의 불안정한 관계 속에서 공존한다고 볼 수 있다.

『조용한 오딧세이』에서 미국은 악과 선함, 차별과 공평이 공존하는 모순된 상태를 보여준다. 미국에서 한국인들은 심각한 인종주의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만, 동시에 미국은 동정과 연민을 전달한다. 주인공인 메어리 팩 리 일가는 미국의 민주와 평등에 대한 동경을 품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길을 나섰다. 메어리 팩 리와 오빠가 중학교를 무사히 졸업했음에도, 가난한 형편으로 인해 오빠는 어쩔 수 없이 학업을 포기하고 가정을 보살폈으며 그녀도 집에서 약 60마일 떨어진 홀리스터(Hollister)에서 학교를 계속 다녔다. 학습 자료를 구입하기 위해 메어리 팩 리는 학교를 다니면서 돈을 벌 수 밖에 없었다. 첫 번째 고용주 집에서의 일은 결코 순조롭지 않았고, 메어리 팩 리는 고용주 아내로부터 비난과 경멸을 받았다. 이로 인해 첫 번째 일을 그만두고 고등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 젠킨스(Jenkins) 부부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젠킨스 부부의 집에서 메어리 팩 리는 존중을 받았다. 그녀가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 젠킨스 씨는

20) Bhabha, Homi, 같은 책, 107-108면.

먼저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침대를 만들어 주었고 켄킨스 부인은 메어리 팩 리와 친구가 되었다.

한편, 내가 공부하기에 구입한 책은 매우 부족했다. 그러나 책을 더 살 돈이 없어 나는 점심 시간에 친구의 책을 빌려서 다음 날의 공부를 베끼곤 했다. 교장 선생님은 우연히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으며 왜 점심을 먹지 않는 이유를 물어 보았다. 왜냐하면 학교 규정상 학생들은 점심시간에 교실에 머물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점심밥이 없다고 설명하자.... 교장 선생님은 켄킨스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말했다. 나는 교장 선생님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부탁하면서 현재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것이 나에게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교장 선생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녀를 위로해 주고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켄킨스 부인의 반응이 무척 궁금했으며 마음은 불안함에 시달렸다. 그러나 집에 들어갔을 때 켄킨스 부인은 친근하게 나를 대했으며 교장 선생님이 왔었다고 얘기했다. 비록 교장 선생님이 한 말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켄킨스 부인은 앞으로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다고 나에게 전했다.

어느 날 아침에 비가 와서 나는 신문지로 머리를 가리면서 등교를 했는데 신문지가 아주 빨리 젖는 바람에 학교에 도착했을 때 몸이 흠뻑 젖어 있었다. 따라서 옷을 말리기 위해 지하실에 내려가자 저를 본 교장 선생님은 왜 비옷과 우산을 사용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그에게 자신의 실제 생활상을 알려주어야 했다.

The books I had bought were not enough, but I didn't have the money to buy any more, so I would copy the next day's lesson from a friend's book during the lunch hour. The principal happened to pass by one time while I was doing this. He said that students were not allowed to stay in the room during lunch hour, and he wanted to know why I was not eating my lunch. When I explained that I had no lunch, he told me to come to his office.....He said he would talk to Mrs. Jenkins about

me, I asked him not to do so and told him it would be difficult for me to find another place at this late date. He said not to worry, that he might be able to help me somehow. On the way home, my mind was troubled. I wondered what Mrs. Jenkins's reaction would be. As I entered the house, she acted friendly and said the principal had been there. She did not mention what he had said, but she told me in the future to take whatever I wanted for lunch.

She also gave me an umbrella and an old sweater of hers, as the result of another incident in school. One morning when it rained, I used a layer of newspapers to cover my head. Of course, that kind of protection didn't last too long, and I was very wet by the time I reached school. So, I went down to the basement to dry out near the furnace. The principal saw me and asked why I didn't wear a raincoat and use an umbrella. I had to tell him the facts of my life again.²¹⁾

젠킨스 부부와 교장 선생님의 선량한 행동은 그녀에게 '왜 어떤 미국인들은 그렇게 선량하고 다른 미국인들은 그렇게 잔인할까?', '이 대륙에서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 '모든 사람들은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라는 미국의 모순된 상태를 일깨웠다. 그리고 이어지는 주인공의 미국 망명길에서도 모순된 상태는 계속 지속되었다. 한편, 기독교 신자로서 매주 주말에 교회에 가야 했지만 주인공은 한국인으로서는 백인 교회에 갈 수 없었고 한국인들이 여는 비공식 교회 예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홀리스터에서 주인공은 백인 교회에 가입하려고 했다. 장로회 교회 목사가 새 구성원에게 질문을 하자, 메어리 팩 리는 거침없이 그의 문제를 대답했다. 목사는 주인공의 해박한 성경 지식에 탄복했으며 교회밖에서 백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미국인들의 적대감을 알게 된

21) Lee, Mary Paik, 같은 책, 48면.

목사는 비록 놀라웠지만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교회로 가입하기를 재촉했다. 메어리 팩 리는 1916년 홀리스터 장로회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고, 주일학교 청소년반 교습을 맡게 되었다. 이와 같이 주인공이 마주친 미국의 갈등은 미국에 대한 그녀의 인식의 모순성과 모호성을 증폭시켰다. 억압자와 피억압자의 정치적, 윤리적 권리가 불평등하더라도, 권위 구조에서는 모순된 상태가 나타난다. 이러한 모순된 상태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억압을 받는 사람들도 억압 속에서 성장할 수 있으며 정체성 구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메어리 팩 리는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미국의 모순된 상태를 절실하게 느꼈으며 이로 인해 미국 현실의 잔혹함과 아메리칸 드림의 아름다움 속에서 자아 정체성을 찾는 모순성에 빠져 들었다. 그러나 아메리칸 드림은 가혹한 미국의 현실과 모순된 일종의 억압과 성장의 관계로서, 미묘하고 감지하기 어려운 저항과 배척을 내포한다. 이로 인해 초기 형태의 ‘제3의 공간’이 형성되었다.

한편, 미국 인종주의로부터 박해를 받은 주인공은 처음으로 외로움과 망연함을 느꼈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미국 땅을 여러 차례 탈출하고 싶었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동시에 백인들의 도움으로 백인들에 대한 두려움과 낯설음을 극복하고 다시금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메어리 팩 리의 백인 친구인 마가렛 핀치(Margaret Finch)는 그녀를 데리고 백인 장로회 예배에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대법관인 아버지에게 주인공을 소개하며 메어리 팩 리를 친절하게 맞이한다. 메어리 팩 리는 미국 백인들의 착한 모습을 느끼며 백인들에 대한 두려움을 점차 극복했다. 앞서 언급한 동생 에른스트가 학교에서 모욕을 당했을 때도 그녀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핀치의 아버지였다.

핀치의 아버지는 대법관으로서 나의 이야기를 친절하게 경청했으며 내가 부모님께서 동생에게 새로운 옷을 살 형편이 아니고 동생의 옷이 젖어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핀치의 아버지는 나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줬으며 동생에게 다음날 자신의 옷을 입고 학교에 가라고 얘기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는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어서 앞으로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나는 감사함과 안도감을 느끼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매우 값진 일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저녁에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대화를 상상할 수 있었다. 다음날 학교 안은 매우 조용했으며 소식은 학생들 사이에 전달되었을 것이다. 학교에서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심지어 선생님들도 매우 조용했다. 핀치의 아버지는 또 다시 기적을 일으켰다.

He was kind enough to listen to my story. I told him my parents were unable to buy my brother a new suit, and his had shrunk up when it got wet. The judge told me not to worry but to take my brother to school next day in whatever clothes we had at home. He said he would talk to the principal, and there would be no more trouble for us in the future. I was so thankful and relieved. It sure pays to have friends in high places.

I can imagine all the talking that must have transpired during the night between the principal and the teachers. It was unusually quiet in school the next day: word must have passed down even to the students. No one said anything; even the teachers were subdued. The judge had really worked a miracle for us again.²²⁾

메어리 팩 리 일가의 경험은 이질적인 공간에서 한국계 미국인 이민자들이 경험하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축소판이다. 만약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을 호소하고 치료할 수 있는 따뜻한 쉼터가 있다면, 아마 모든 상처가 그렇게 무겁지 않았을 것이다. 핀치 아버지의 배려는 이상적인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불러일으켰다. 메어리 팩 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더 나은 삶을 원하게 되었다. 핀치 아

22) Lee, Mary Paik, 같은 책, 57면.

버지가 준 관심과 우정은 배고픔과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힘을 실어주었으며 젠킨스 부인과 마가렛 등 백인 여성들의 도움은 그녀에게 일종의 저항력을 부여했다. 따라서 식민자들의 강력한 문화는 해소되었고 피식민자들의 취약한 문화는 끊임없는 협상과 어려운 상호 작용을 통해 성장했다. 이때부터 메어리 팩 리는 미국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자아 정체성 구축을 시작하며 인종차별의 문화적 차이를 느끼는 단계에서 민족평등의 문화적 협상을 이루는 단계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현실과 아메리칸 드림의 모순된 상태는 식민지 지배의 절대적인 권위를 단절시켰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식민자와 피식민자 사이의 단순한 관계에 변화를 주었다. 식민자와 피식민자 사이의 모순된 상태는 종종 서로 배척하면서 동시에 서로 이끄는 종속 관계를 형성하였다. 『조용한 오딧세이』 속 미국 사회의 모순된 상태와 제국주의의 내부적 갈등은 체제의 붕괴를 불러일으키고 이민자와 원주민, 취약한 집단과 강력한 집단, 그리고 소수민족과 다민족 사이의 모순된 상태를 조성하며 미국 주류 사회의 패권적 패턴을 무너뜨릴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소수 민족 집단은 자신의 노력과 주동성을 통해 단순히 ‘제1의 공간’이나 ‘제2의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모호한 영역인 ‘제3의 공간’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4. 정체성 재구성: ‘제3의 공간’ 속 지울 수 없는 아메리칸 드림

호미 바바에 따르면, “문화의 번역 과정에서 두 문화의 경계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적인 공간’이 열린다. 간극적인 공간은 원시적인 ‘본질주의’로 회귀하고자 하는 자아의식과 대립할 뿐만 아니라, 일종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분열하는 주체로 방치되는 것을 반대한다. 또한, 두 문화가 서로 뒤섞이고 중심에 속한 공간이 바로 ‘제3의 공간’이라고 보았다.”²³⁾ 제3의 공간에서는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협상’을 통해 균형적인 정체성을 구축

해야 한다. 이는 모든 요소와 협상해야 하며, 지배적인 또는 적대적인 요소들도 소수 민족의 정체성으로 간주하고 정체성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다문화 커뮤니케이션에서 하나의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문화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문화 정체성은 주체가 이원론적 대립의 상태에 빠뜨려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빠뜨릴 수 있다. 소설 속 인물들은 문화가 뒤섞인 사회 속에서 하나의 문화 정체성을 추구하면서 정체성을 상실해 더욱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따라서 뒤섞인 문화 속에서 살아남고 곤경을 벗어나기 위해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문화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양성은 다문화 속 정체성 구축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였다. 문화의 다양성은 끊임없는 협상 과정으로서, 협상 과정에서 이원론적 대립에서 벗어나 문화의 다양성 속에서 협상을 진행하며 정체성을 구축한다.

주인공 메어리 팩 리는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서 모순된 상황에 빠졌고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미국에서 차별과 괴롭힘에 시달렸다. 그러나 선량한 백인 여성의 도움과 책속의 지식으로 또다시 마음속의 희망을 되살렸다. 한편, 메어리 팩 리는 학습을 통해 미국의 모순된 상황에 대한 심리적 모순을 해소하고, 한국계 미국인들이 동경하는 자유, 민주, 평등을 강조하는 미국을 찾아내는 일에 매진했다. 따라서 메어리 팩 리 일가는 문화적 협상을 통해 문화적 적대감, 모순된 요소들을 수용할 수 있었고 그녀는 한국계 소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구축해 다문화가 융합된 ‘제3의 공간’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조용한 오딧세이』에서 메어리 팩 리 일가는 학력을 쌓으며 내면의 외로움과 허탈함을 달래고 미국의 모순된 상황에 따른 복잡한 모순 심리와 협상을 나누며 한국인들을 통해 단절된 민족 역사의 기억을 되찾았다. 또

23) Bhabha, Homi, “Unpacking my Library...Again”, *The Post-colonial Question: Common Skies, Divided Horizons*, Eds. In Iain Chambers and Linda Curti, London: Routledge, 1996, 204면.

한,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를 혼합하여 소수 민족이라는 새로운 문화 정체성을 구축했다. 호미 바바에 따르면, 다양성은 제3의 공간의 대표적인 특징으로서 각 문화가 다르다고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충돌하면서 문화의 다양성이 발생했다. 따라서 다문화의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문화의 순수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메어리 팩 리 일가의 문화 정체성도 다양성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처음에 추구했던 민주적이고 평등한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에서 억압을 받는 미국의 현실에 이르기까지 주인공은 미국의 평등이 한국계 이민자나 멕시코계 이민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미국의 인종차별로 인한 육체와 정신의 이중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들은 자신이 강해야만 미국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학력을 쌓아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메어리 팩 리 일가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형제자매들을 공부시켰다. 그리고 모두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무사히 졸업했다. 특히, 메어리 팩 리의 두 아들도 미국에서 높은 학력을 얻었다. 그 중 헨리는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최초로 아시아인 직원으로 입사했다. 앨런(Allan)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의 우등생으로 졸업해 경영학 학사 학위를 받은 후, 헨리와 같이 매우 좋은 직장을 찾아 일을 하게 되었다. 헨리와 앨런의 성공은 한국계 집단이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 줄곧 기대했던 변화를 반영하며 이 변화가 실현되기까지 약 10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디아스포라는 모국과의 인적 왕래를 포함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직접적인 교류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모국과의 상호관계 및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다.”²⁴⁾ 그리고 “물질적으로는 빈한하더라도 정신적으로 큰 만족을 누리고 있거나 사회적인 존경

24) 임채완, 선봉규, 지충남, 전형권,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다중정체성과 모국관계』, 북코리아, 2019, 58면.

을 받을 때 성공했다고 정의할 수도 있다. 또한 개인의 성취보다는 내가 속한 집단의 향상을 성공의 척도로 삼을 수도 있다.”²⁵⁾ 이 밖에도, 메어리 맥 리 일가는 한국계 미국인들을 모집하여 한국 동포들을 도와준다.

농업을 운영하는 동안 우리는 전력으로 로스앤젤레스의 제퍼슨 대로에 있는 한국의 장로회 교회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자금을 기부했다. 매년 3백 달러의 기부금을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추수감사절 만찬, 크리스마스 기금, 어머니의 날과 같은 특별한 활동에도 기부했다. 액수가 가장 많은 돈은 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사용된다. 일요일은 농장이 가장 바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예배에 참가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년간 교회를 지지해왔다.

All during our farming years, we donated what we could to help build and maintain our Korean Presbyterian Church on Jefferson Boulevard in Los Angeles. We paid our tithe of three hundred dollars yearly as well as special donations for the Thanksgiving dinners, Christmas fund, and Mother's Day celebrations. The largest share went to the maintenance fund to keep the church going. Since Sunday was the busiest day on the farm, we could not attend services. Nevertheless, we supported the church for many years.²⁶⁾

한편, 아들 헨리의 노력으로, 낡은 설비를 한국에 보내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일부 미국 방직 제조업체에게 새 기계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했다. 한국의 방직업은 비록 느리게 시작했지만 결국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한국의 전후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 헨리는 한국에 보낼 목화를 찾기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녔으며 심지어 인도에도 가보았다. 헨리는

25) 이현송, 「미국인의 꿈」 이념의 사회적 의미, 『사회이론』 31, 한국사회이론학회, 2007, 76면.

26) Lee, Mary Paik, 같은 책, 101면.

이번 모험의 성공을 보고 매우 기뻐다. 현재 미국 상점의 많은 충전물에는 'Made in Korea'라는 라벨이 붙어 있다. 아울러 한국에서 온 다양한 의류가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최근의 발전으로 인한 변화이다!

The U.S. government agreed to give some American textile manufacturers new machinery if they would send their old equipment to Korea. After a slow start, the textile industry in Korea became a huge success, contributing greatly to that country's recovery after the war. Henry traveled all over to find enough cotton to send to Korea; he even went to India. He was very pleased to see the success of that venture. Today, many stuffed animals in American stores have "Made in Korea" labels. Also, all sorts of wearing apparel from Korea is sold in the United States. What a difference the years of progress have made!²⁷⁾

메어리 팩 리는 '사모님'이 된 후에도 여전히 한국 동포들을 도와주었다. 그녀는 공항에서 한국에서 온 새로운 이민자들을 맞이하며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알려주었다. 또한, 새로운 이민자들에게 이전 세대의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겪었던 고생 덕분에 현세대 한국 이민자들이 이런 아름다운 변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알려주었다. 한국 동포와의 연계를 통해 메어리 팩 리 일가는 모국의 역사적 기억과 인간적인 유대를 되찾았고 단절된 역사적 기억을 되살릴 수 있었다. 비록 미국에서 소수 민족이 겪는 곤경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소수 민족의 저항 정신과 다시 연결된 모국의 기억은 이들에게 미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 세울 수 있는 희망을 주었다. 따라서 메어리 팩 리는 문화적 정체성을 미국의 순수한 전통문화나 원래의 포스트콜로니얼리즘 패권하의 민족문화로 규정하지 않고, 한국계 민족문화와 미국의 주류문화가 접하는 경계에서 다양성

27) Lee, Mary Paik, 같은 책, 112면.

을 바탕으로 한 정체성을 구축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경험한 문화적 융합을 바탕으로, 메어리 팩 리는 소수 민족의 시각을 발견하였고 이는 호미 바바가 제시한 이민자들은 이민자로서 이중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진실된 눈은 이민자의 것이며, 소수 민족에 속한다.

한편, 메어리 팩 리 일가는 다른 소수 민족 집단을 도와 정체성 구축과 문화적 귀속을 도모한다. 호미 바바가 제시한 '제3의 공간'은 두 문화의 정체성을 뒤섞어 개인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것 외에도 동시에 사회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민족과 다른 재미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재구축하는 것을 포함한다.

진주만의 비극이 일어났을 때, 모든 일본인들은 그들의 집과 재산을 떠나 강제 수용소로 보내져야 했다. 저의 이웃은 그녀에게 농장을 돌봐 달라고 부탁했으며 그녀가 원하는 것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저에게 그들은 저의 친구로서 그렇게 할 수 없었으며 이웃에게 가능한 한 그들의 물건을 돌보겠다고 했다.

한편, 나의 친구는 낯선 사람들이 와서 그의 물건을 가져갈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나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집에서 지내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다고 말씀했다.... 그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본인 이웃은 그의 토지를 지켜달라고 나에게 부탁했으며 자신의 집에서 지내도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나는 너의 집에서 살지 않겠지만 노동자들을 위해 당신이 지어준 오두막에서 살 것이다.'라고 일본인 이웃한테 얘기했다.

When the tragedy of Pearl Harbor struck, all the Japanese were forced to leave their homes and property and were taken to concentration camps. Our neighbors asked if we would look after their farms; they told us to take anything we wanted from their homes. They were our friends, so we couldn't do that, but we said we would look after their things as much as possible.

One friend asked us to live on his property, rent-free, to keep out strangers who might be coming around to take whatever they could. We told all of them that we would do our best..... Another Japanese neighbor asked us to watch his land and live in his house when he was taken away. I said, "I won't live in your house, but I'll live in one of the shacks you built for your workers."²⁸⁾

한편, 일본인 이웃이 수용소에서 돌아오자 메어리 팩 리 일가는 그들의 재산을 돌려주었다.

호미 바비에 따르면, 글로벌 세계에서 발언권을 확보하고 자신의 민족 정체성과 집단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민족 중심주의이나 민족주의적 시각을 버리고, 다른 민족의 역사와 지리를 ‘출발점’으로 삼아 문화의 ‘기원’을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상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소수 민족은 더이상 문화 정체성을 특정 지역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서로 연결하고 협력한다. 민족주의의 편협함은 억압을 받는 각국 민족들의 연합으로 확대되어 아메리칸 드림은 더이상 개인의 이상이나 특정한 민족의 사명이 아니라 억압받는 수천 명의 미국 소수 민족들이 함께 투쟁하는 목표가 되었다. 메어리 팩 리 일가는 멕시코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며 다른 농민은 20센트를 받지만 이들에게 시간당 25센트를 지급하고, 초과 근무 시 추가 비용을 지불하기도 한다. 메어리 팩 리의 남편 HM은 항상 멕시코 근로자들을 ‘부인’, ‘선생’이라고 부르며 수확 시즌이 끝나면 직접 100달러를 들여 근로자들을 위한 성대한 파티를 열기도 한다. “전쟁 기간 동안 농장 근로자들은 매우 적었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전할 때마다 그들은 항상 농장으로 돌아온다.”²⁹⁾라는 묘사와 같이, 노동자들은 공통의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메어리 팩 리 일가의 노력으로 미국의 소수 민족

28) Lee, Mary Paik, 같은 책, 94-95면.

29) Lee, Mary Paik, 같은 책, 99면.

은 더욱 광범위한 통일 전선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이후로 메리어 백 일가는 자아 정체성을 구축하는 임무를 전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의 재구성으로 전환하였다.

이와 같은 정체성 협상을 통해 주인공은 결국 또 한 번의 변화를 겪게 되고, 갈등과 충돌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끊임없이 새로운 정체성을 협상하게 된다. 동시에 소수 민족 사이의 공간을 도모한다는 것은 소수 민족의 정체성 구축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상태이며 필연적인 것이다. 메어리 백 리 일가에게 있어서 모국 문화와 미국 문화는 삶에서 불가분한 일부분으로서 모국 문화는 뿌리가 되고 미국 문화는 꿈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두 가지 정체성을 수용하며 ‘제3의 공간’을 구축했다. 그리고 메어리 백 리 일가는 ‘제3의 공간’을 자신들의 집단을 비롯한 미국의 다른 소수 집단의 정체성 구축을 위해 영역을 확장하며 ‘제3의 공간’에 세계주의적인 색채를 입혔다.

5. 결론

포스트콜로니얼리즘 이론에서는 서양 세계가 문화 창작과 이데올로기를 매개체로 문화 지식 차원의 이점을 활용하여 동양 문화에 대한 식민지 패권을 진행한다고 주장한다.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강국의 패권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탐구하며 취약한 민족의 정체성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소수 민족을 위해 목소리를 내어야 하고 문화 패권주의를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조용한 오딧세이』는 메어리 백 리 일가의 미국 생활을 통해 자아를 표현하고 긍정적인이며 반항적인 소수민족의 이미지를 그려내며 한국인들의 목소리를 냈다.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선택한 이민국 미국은 자신과 후손들이 뿌리를 내려야 할 땅이다. 메리처럼 조국과 이민국 사이에서 조화와 균형을 꾀하려

고 노력한 이민자도 아마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것이다.”³⁰⁾ 포스트콜로니얼리즘 텍스트 색체를 띤 『조용한 오딧세이』은 ‘제3의 공간’의 협상 전략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를 협상하고 소수 민족의 정체성과 공동체의 이름을 새롭게 바꾸어 한국계 미국인 집단의 새로운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문화 공간을 쟁취한다. 그리고 나아가 자유, 민주, 평등을 강조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재구성한다. 이러한 내용은 호미 바바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제3의 공간’의 문화 서사는 한국인 작가로서 메어리 팩리의 정체성에 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서양의 주류 문화를 저항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제3의 공간’은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한국계 미국인 및 한국계 미국인 문학을 위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으로서 문화 간 협력, 상생과 차이점 속에서 적극적으로 공통점을 찾는 태도와 목표를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다문화가 교차하는 글로벌 시대에 미국의 패권주의 문화에 직면하여 메어리 팩리는 자신의 작품 속에서 전통적인 이원론적 대립에서 탈피하면서 오랜 세월을 거쳐 일반화된 사회 관습의 분화를 해소하며, 혼잡한 형태의 다양성을 추구하며 정체성, 그리고 사람과 사람, 문화와 문화 간의 관계를 재조명할 것을 호소했다. 메어리 팩리의 개념은 이민자들이 직면하는 문화적 정체성을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다. 또한, 소외계층에게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향을 제공하며, 억압적인 패권통치와 이원론적 지적 체계에 대한 사고를 일깨우며,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자신의 주체적 지위를 확인하여 궁극적으로 자신의 역사를 재구성하고 평등, 자유, 자주로 나아가도록 한다.

30) 김옥동, 같은 책, 372면.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Lee, Mary Paik, *Quiet Odyssey: A Pioneer Korean Woman in America*, Ed. Sucheng Chan, Seattle & London: U of Washington P, 1990.
- Bhabha, Homi, *The Location of Culture*, New York: Routledge, 2004.

2. 논문 및 단행본

- 김옥동, 『(한국계 미국 이민) 자서전 작가= Korean American immigrant autobiographers』, 소명출판, 2012.
- 김의락, 『경계를 넘는 새로운 글쓰기: 아시아계 미국문학 연구』, 신아사, 2003.
- 유선모, 『한국계 미국작가론』, 신아사, 2004.
- 이소희, 『『조용한 오딧세이』: 역사의 주체로서 삶 쓰기』, 『영미문학페미니즘』 24(2),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2016, 115-161면.
- 이현송, 「미국인의 꿈 이념의 사회적 의미」, 『사회이론』 31, 한국사회이론학회, 2007, 71-103면.
- 임진희, 『한국계 미국 여성문학: 인종·성·국가의 미학』, 태학사, 2005.
- 임채완, 선봉규, 지충남, 전형권,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다중정체성과 모국관계』, 북코리아, 2019.
- 장우권, 김현희, 『(라키비움Larchiveum에 숨어있는) 코리언 디아스포라 지식정보자원』, 청람, 2022.
- 케빈 케니, 최영석 역, 『디아스포라 이즈(is)』, 앨피, 2016.
- Bhabha, Homi, "Dangerous Liaisons: Gender, Nation, and Postcolonial Perspectives", *World and the Home*, Eds. McClintock A, Mufti A, Shohat 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7, 445-455면.
- _____, "Unpacking my Library...Again", *The Post-colonial Question: Common Skies, Divided Horizons*, Eds. In Iain Chambers and Linda Curti, London: Routledge, 1996.
- Foucault, M, *The Archaeology of Knowledge and The Discourse on Language*, New York: Vintage Books, 2010.
- James Truslow Adams, *The Epic of America*, Simon Publications, 2001.
- Elaine H. Kim, "Quiet Odyssey: A Pioneer Korean Woman in America. by Mary Paik Lee, Sucheng Chan", *Pacific Affairs*, Vol. 64, No. 2 (Summer, 1991), 290-292

면.

Glenna Matthews, "Quiet Odyssey: A Pioneer Korean Woman in America by Mary Paik Lee", *Agricultural History*, Vol. 65, No. 1 (Winter, 1991), 113-115면.

Patricia Lin, "Quiet Odyssey: A Pioneer Korean Woman in America Mary Paik Lee Sucheng Chan", *MELUS*, 1991 Apr 01, 17(1), 114-117면.

Wayne Patterson, "Quiet Odyssey: A Pioneer Korean Woman in America(review)", *Korean Studies*, March 1992, Vol. 16 Issue: 1, 125-126면.

<Abstract>

The Third Space and the American Dream
– The Identity Reconstruction in The *Quiet Odyssey* from
a Postcolonial Perspective

Zhang, Xidong

In today's world where immigrant writers and diaspora groups are receiving widespread attention, the exploration of ethnic and cultural identity is becoming increasingly nonnegligible. The concept of the “third space” proposed by Homi K. Bhabha, a representative figure of postcolonial theory, has provided a good remedy for the various confusions faced by diaspora groups and provided a place for “displaced” outsiders and displaced groups. American Korean literature is an important branch of the diaspora literature in the world. Mary Paik Lee, as an outstanding representative of Korean American writers, tells the story of the first generation of immigrants settling down and taking root in the United States in her autobiography, *The Quiet Odyssey*. As the subjects of the diaspora, the characters in the novel have a vague relationship with two cultures, which enables them to constantly deconstruct their old identities and reconstruct new diaspora identities in the process of cultural negotiation, achieving self-growth through their different diaspora experiences. The autobiography timely constructs the “third space” in a multicultural context. The story in the book depicts the diaspora population wandering on the edge of two cultures in a new era, ultimately breaking away from the marginalized image of the “other” and giving the diaspora Koreans a profound reflection.

Key words: the third space, identity reconstruction, American dream, Mary Paik Lee, *Quiet Odyssey*

투 고 일: 2024년 5월 14일

심 사 일: 2024년 6월 14일

게재확정일: 2024년 6월 14일

수정마감일: 2024년 6월 25일